

디지털 시대를 예술의 은유적 공간으로 해석한 문명 현상학

〈출판저널〉이 연중기획으로 펼치는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 작업은 4월로 3회째를 맞는다. 〈출판저널〉 기자들로 구성된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1차 독회 설명회를 갖고 15권의 후보 도서를 5권으로 압축했다. 1차 독회는 각 기자가 3권의 도서를 추천한 다음 다른 기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추천자 스스로 1권을 추천도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한 권은 장르, 기획성, 작품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추천자와 다른 기자의 제청을 거쳐 제외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 작업을 거쳐 최종 압축된 책은 모두 5권으로 3월 7일 2차 독회 및 품평회를 가졌다.

2차 회의에 추천된 저작물은 최병권 이정옥 씨가 엮은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휴머니스트), 이시 히로유키 외 2명의 《환경은 세계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경당), 최성은 씨와 안장현씨의 공동 저작인 《석불-돌에 새긴 정도의 꿈》(한길아트), 한홍구 씨의 《대한민국史》(한겨레신문사) 이종관 씨의 《사이버 문화와 예술의 유혹》(문예출판사) 등이었다.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는 10여 년 동안 프랑스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에 출제되었던 문제와 답안 중에서 64개를 선별하여 교양적 읽을거리를 담은 책. 인문 예술 과학 정치 윤리 등 폭넓은 분야의 높은 지적 수준을 담보했다는 평을 받았다. 《환경은 세계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는 환경학, 환경 고고학, 비교문명사와 경제인류학을 전공한 일본학자 3인의 정답집이다. 이슬람 세계로 수출된 백인 노예의 역사, 중세 유럽 페스트의 창궐과 인간 거주유형

의 연관성 등을 3인의 교차적인 시선으로 탐색했다는 데서 의미로운 작업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석불-돌에 새긴 정도의 꿈》은 석불의 현존 지역을 일일이 답사해 석불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정밀한 사진 작업을 동시에 수행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史》는 우리나라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보아야 하는지 '편향을 거부하는 눈'으로 역사를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돋보이는 수작으로 논의됐다. 이종관 씨의 《사이버 문화와 예술의 유혹》은 디지털 시대와 문화의 관계를 현상학적으로 조명하고 미래사회 예술의 설 자리를 탐구한 저작으로 사이버 시대와 예술의 공존을 철학적 층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위의 저작물들에 대한 미덕들 중 어떤 점을 상위에 놓을 것인가에 대한 격론 끝에 선정위원들은 《사이버 문화와 예술의 유혹》과 이종관 씨를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로 선정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사이버 문화와 예술의 유혹》이 안락한 독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문화적 수용태세가 잘 갖춰진 가운데 급속히 디지털 시대로 진입한 현실에서 사이버 공간의 의미성을 파악하고, 그 안에 예술이 들어설 자리가 깊어 있게 탐구한 점을 높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크게 작용했다. 우리 삶의 한 틀이 되어버린 가상공간을 예술이 은유적 공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석은 이질문화와의 화해로운 공존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도 좋은 것이다. 이종관 교수의 역작에 독자들의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대한다. **출판**